

『莊子』 비유법에 대한 철학적 고찰

김 상 래

(서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 I. 해체주의를 통한 장자 철학의 해독
- II. 과장법과 초월적 사유
- III. 은유와 우언, 중언, 치언
- IV. 비유법의 철학적 의미-놀이와 자유
의 철학
- V. 맺음말

<국문 요약>

이 논문은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과 장자(BC. 369-289?) 철학의 문학적 전략(은유와 비유법)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장자가 사용한 독특한 언어 표현인 과장법, 우언, 중언, 치언 등 다양한 비유법의 철학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莊子』 텍스트 속에 표현된 다양한 과장과 은유의 수사법들은 장자가 우주를 무의미, 무목적, 무중심의 사유로 해명해내야 한다는 간접화법의 언설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장자는 이런 사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천히 걸으면서 노는 것(逍遙遊)’을 지향하는 놀이의 철학을 제시한 사상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논자는 이 논문을 통해 첫째, 장자는 인간 대신 자연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연을 추구해야 할 목적과 의미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에서 어떤 것도 중심으로 설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무중심적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을 구명하였다. 둘째, 「소요유(逍遙遊)」편에 등장하는 물고기 곤(鯁), 봉새(鵬) 등의 한자 표현에 대한 문자학적 해독을 통해 장자가 제시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방법으로 ‘중심의 해체’를 지향함을 설명하였다. 셋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중심을 추구하지 않는 장자의 철학적 의도들은 언어 표현에 있어서 주어(話者)의 의미가 배제된 다양한 수사법 즉, 우언, 중언, 치언 등 우회적 전략과 연계되어 있음을 고찰하였다. 넷째, 장자 사유의 근거에는 주어 또는 자아(Self), 중심과 의미, 목적 등을 거부하는 놀이와 자유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현실사회에서 인간이 추구할 의미와 목적이 엄연히 존재하며, 인간은 그것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이 글에서 해명하는 장자의 무중심의 사유와 놀이의 철학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물론 이 논문에서도 논자의 주장만 옳고 기존의 이해는 틀렸다고 서술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장자의 사유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방법에 의한 해독이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장자, 데리다, 해체주의, 은유, 비유, 자유, 놀이.

I. 해체주의를 통한 장자 철학의 해독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가 인간의 사유와 문화를 해명하기 위해 기존의 철학적 연구방법론을 비판하고 인문, 예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학문적 방법론을 해체주의라고 부른다. 해체주의는 과거의 형이상학적이고 태일적인 이분법의 사유에 대한 비판을 겨냥한다. 해체주의 철학방법론을 정립한 데리다는 그동안 기존 철학자들에 의해 인간과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보다 이차적이고 주변부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차적인 것과 주변을 또 다른 중심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데리다가 철학방법론으로 제시한 ‘신조어’ 해체¹⁾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서 ‘어떤 중심도 상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체’는 형이상학적 현존을 겨냥하는 이른바 모으기의 사유를 비판하고, 차이의 측면을 중시하면서 어떤 중심도 부정함을 함의하는 용어이다. 즉 해체의 기능은 중심들의 사이와 간격에 자리하며, 언제나 ‘두 얼굴(biface)’, ‘兩面(biphase)’을 지향한다. 이 양면성으로의 해체는 하나로 모음²⁾의 불가능성을 지시한다.

논자가 보기에, 2천년의 시간과 동서양의 지역, 그리고 고대와 현대의 시대를 뛰어넘어 데리다의 철학과 중국 고대 사상가 장자의 사유는 인

1) 하이데거(M. Heidegger)의 ‘파괴(Destruktion)’라는 개념에서 힌트를 얻은 데리다의 신조어 ‘해체(deconstruction)’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번역된다. 데리다의 ‘해체(deconstruction)’의 어원에 대한 설명은 Barbara Johnson, *Introduction to Dissemi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xiv 참조. 한편, deconstruction에 대해 국내에서는 ‘해체(解體)’, 일본에서는 탈구축(脫構築), 대만에서는 ‘해구解構’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번역 용어의 의미상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 이 논문에서는 국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체解體’를 사용한다.

2) 로고스(logos)의 어원인 그리스어 ‘legein’은 ‘모으다’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하나로 모아진 진리’,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간과 자연 중 어느 것에도 중심을 두지 말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장자 사유와의 관련성은 동양 사유의 관점에서 ‘도(道)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들의 해답에서 찾을 수 있다. ‘도(道) 즉, 진리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대체로 두 가지 대답이 시도될 수 있다. 인간과 세계에 관한 도(道)를 이성(logos), 현존(現存, presence), 책(Book)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도 있고, 반면에 도(道)를 문자(文字)³⁾, 차연(差延)⁴⁾, 텍스트(text)⁵⁾와 연계해서 파악할 수도 있다. 전자는 모으기의 철학과 사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성적 이해이고, 후자는 빼기의 사유와 철학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해체적 이해라 이름 붙일 수 있다.⁶⁾

전자의 이른바 구성주의적 이해 방법은 ‘도(道)’를 인간이 중심이 된 이 세계에서 추구할 진리, 또는 그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말(언어)⁷⁾로 규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에서는 말을 통해 진리를 추구

3) 데리다 철학에서 ‘문자’는 ‘글자’의 의미를 넘어 ‘모든 차이를 가능케 하는 상징과 기호’로서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중국문자 한자는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 다의성의 언어라는 점에서 데리다가 설명하는 문자의 정의에 잘 어울리는 문자 체계이다. 이 논문의 주제인 寓言, 重言, 卮言 등의 비유법의 표현도 기본적으로 한자를 매개로 한 언어체계라는 점에서, 그리고 비유법은 언제나 타자를 경유하는 의미표현이라는 점에서 장자의 道(진리; 사유의 본질, 철학적 특성)와 데리다 철학연구의 방법론의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4) 라틴어 동사 ‘differre’와 프랑스어 동사 ‘différer’(영어로는 ‘to differ’와 ‘to defer’의 뜻에 해당)에는 ‘차이나다’와 ‘연기하다’의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데리다는 이 동사의 명사형인 ‘difference(차이)’와 ‘delay(연기)’의 뜻이 결합된 ‘差延(différance, ‘différence’의 ‘e’를 ‘a’로 대치하여) 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5) ‘텍스트(text)’라는 말은 ‘옷감, 직물(textile)’과 어원을 같이 한다. 여기서 ‘텍스트’는 단순히 ‘책(book)’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내의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얹혀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6) 이는 동서철학의 주요 철학사유를 구성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로 구분하는 김형효의 분류방식에 근거한 표현이다.

7) 한자 ‘道’는 多義語 문자로서, 이 글자는 ‘길’, ‘진리’, ‘수단’, ‘방법’ 등의 명사적 의미 외에 동사로 ‘말하다’의 뜻을 담고 있다.

하고 그로부터 획득된 진리를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경건하게 받들기를 주장한다. 『論語』와 『孟子』 등에 표현된 공자와 맹자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경전에 담겨 있는 내용을 귀로 들어 孔孟이 제시한 진리를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말씀은 진리이고, 삶의 교훈이며 중심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를 위시로 한 많은 철학자들은 문자기호보다 음성기호가 언어의 중심에 있으며 진리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口語)은 정신적 경험의 상징이고 글(文語)은 구어의 상징이다”⁸⁾고 말하여 말이 중심이고 글은 이차적인 언어표현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루소는 『인간 언어 기원론』에서 “문자란 음성 언어의 표상에 불과하다”⁹⁾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들 철학자는 인간의 사유는 문자가 아니라 음성(말)에 의해 표현되는 것이 본질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공맹의 유학사상은 공자왈, 맹자왈의 형식으로 자신의 언설을 시작한다. 이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의 저술은 데리다적 의미로 말하면, 책(book)에 해당한다. 일단 책은 저자의 사상을 독자가 내면에 모으고, 독자들의 삶의 교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사상은 저자의 주어진 표현이 아닌 사물을 등장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빗대어 우회적으로 그들의 사유를 개진한다. 즉, 데리다적 구분에서 이들의 저술은 텍스트(text)에 해당한다. 김형효는 유학과 도가 사상에서 추구하는 도(道)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유학의 도(道)는 사상가의 교훈을 내면에 모으는 구성적(構成的, constructive)인 의미를 지향하는 반면, 노장의 도(道)는 사상가의 사유가 드러나지 않고, 언제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추구되는 해체적(解體的, deconstructive)인 특성을 지닌다.¹⁰⁾

8)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by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11.

9) 김성도, 『그라마톨로지』, 62쪽

10)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9쪽. 참조,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말=로고스=현존을 일체화하는 이른바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문자, 차연, 텍스트와 연계해서 도(道)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는 진리가 인간이 추구할 의미와 목적으로 전제된 질문인 ‘도(道)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대신 ‘도(道)는 이 세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어떻게 해독되는가’라고 묻는다. 이 세계는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독되어질 대상이라는 것이다. 공맹의 의미 추구하고 목적 위주의 사유와 달리 장자의 언설에 등장하는 도(道)는 결코 존재론적 근거와 의미론적 고유성으로 해독되기보다 오히려 데리다적 의미에서 해체와 무중심, 놀이¹¹⁾, 자유 등의 개념과 잘 어울린다. 이런 관점에 의거하면, 데리다의 해체이론과 문자학¹²⁾을 원용하여 장자 철학의 특성을 고찰하는 논리적 정합성이 담보될 수 있다. 또한 장자 철학의 외연과 내포를 넓히고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사상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도(道)’의 측면에서 중국철학을 이해하고 규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맹유학의 도(道)는 인간중심의 주요 개념이라 생각하고, 장자의 道는 자연중심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인 구분으로는 수긍할 수 있으나,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이 글에서는 장자의 도(道)를 자연중심주의로 해독하지 않는다. 인간/자연중심주의는 둘 다 여전히 하나의 중심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유학의 道가 형이상학적, 윤리적, 자연주의적 진리를 가리키는 반면, 장자의 도(道)는 우주에서 중심을 구성하는 어떤 진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른바 무중심의 사유를 지향하는 데에서 그 학문적 변별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최근 국내외의 학자

11) 데리다는 존재론-신학과 현존의 형이상학을 뒤혼드는 것을 놀이(jeu, play)라고 부른다. 앞의 책, 101쪽.

12) ‘grammatologie, Grammatologie’에 대한 번역이다. 이 용어는 ‘문자학’ 대신 ‘문법학’ 또는 발음 그대로 ‘그라마톨로지’라고도 한다. 데리다는 ‘문자’의 범위를 차이와 흔적이 만든 모든 유형적 무형적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들은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이론을 통한 새로운 장자 해독법을 시도해 왔으며, 이들의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³⁾ 이들에 의하면, 장자의 사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중심도 거부하는 해체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논자도 이들의 연구를 수용하면서 이런 유형의 연구를 시도하는 외연을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그 일환으로 데리다의 해체주의적 철학연구방법론-특히 은유와 관련하여-에 의거하여 장자가 즐겨 사용하는 여러 가지 비유법의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장자의 철학적 사유의 유사성 내지 일치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두 사상가는 첫째, 시기적, 지역적으로 연계를 찾기 어려운 점. 둘째, 그들의 철학의 유사와 일치에 대해서도 학계의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체주의적 독법으로 장자의 사유를 해독해내는 것에 대해 한계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위

13) 국내의 경우, 참고문헌에 제시된 1990년대 이후 김형효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이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오탈석, 정용선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 다음의 연구결과물을 참고할 만하다.

* Hongchu Fu, Deconstruction and Taoism: Comparisons Reconsidered,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Vol. 29, No. 3.

* Kuang-ming Wu, *The Butterfly As Compan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0).

* Michelle Yeh, The Deconstructive Way: A Comparative Study of Derrida and Chuang Tzu,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 10 No. 2)

* Ye Xiushan, Burial of the World of Meaning: On Derrida, a Philosopher of Obscurity, *Chinese Social Sciences* 3. 1989.

* Youru Wang, *Linguistics Strategies in Daoist Zhuangzi and Chan Buddhism: The other way of speaking*, Routledge Curzon. 2003

이 연구는 김형효, 오탈석, 정용선 등의 연구성과를 참조하고, 김상래, 『노장 사유의 해체적 이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과 「장자의 해체주의적 윤리설」, 『한국철학논집』 32집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데리다의 해체이론 특히 은유 개념과 莊子の 寓言, 重言, 卮言의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시도이다.

의 두 가지에 근거한 비판의 핵심은 장자철학에서의 도(道)는 인간과 세계의 존재양식에 대해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논리의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장자 사유구조에서 저것과 이것의 짝(대립)을 없애는 것(경지)을 도추(道樞)라고 하는데¹⁴⁾, 일반적으로 장자가 생각하는 도(道)의 기능은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은 어떤 중심과 가치에 의해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상대주의란 인간과 세계를 평가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을 상정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중심의 거부, 양면의 지향이라는 철학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상대주의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사상가의 철학이 본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 장자와 데리다의 철학적 사유의 주요 경향성은 유사한 길을 가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 철학 전체를 비교하고 유사성을 제시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상가의 철학적 방법론의 유사성에 유의하면서, 특히 장자의 비유법에 한정해서 데리다의 은유 개념을 적용하여 그 철학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철학의 해독은 끊임없이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莊子』¹⁵⁾에 보이는 우언, 중언, 치언 등의 비유법의 철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장자 철학이 의미와 목적, 어떤 중심을 추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무중심의 사유를 지향하며, 자유와 놀이를 겨냥하는 철학임을 해명하였다. 이제 데리다의 해체로 대표되는 철학방법론의 여러 해독법에 대한 개략적 이해를 기반으로, 『莊子』 텍스트에 보이는 간접화법, 비유법 등의 우회적 언어표현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한자의 문자학적 의미에 주

14) 『莊子』, 「齊物論」, “彼是莫得其偶, 謂之道樞”. 한자 추樞는 돌쩌귀, 장쇠 등의 뜻으로, 문을 열기도 하고 닫게도 하는 쇠붙이를 의미한다.

15) 『莊子』 등 원전과 편명은 한자로 표기하였으며, 주요 개념에 대해서는 한글(한자)로 표시하였다. 이하 동일.

목하면서, 과장법과 은유의 철학적 의미를 해독하고, 이를 통해 장자가 존재의 범위와 영역을 초월하는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과장법과 초월적 사유

제자백가의 저술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莊子』의 문체적 특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자는 ‘물고기(鯢)’, ‘새(鵬)’ 등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 문자(漢字)를 사용하면서, 이들 개념과 용어가 ‘다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text of polysemy)’¹⁶⁾임을 암시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장자는 「齊物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道)란 본래부터 영역이 없는 것이며, 말(言)은 본래부터 항상된 의미가 없다.¹⁷⁾

이 인용문에는 진리(道)와 언어(言)에 대한 그의 사유가 잘 제시되어 있다. 즉,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들의 기준으로 울타리와 영역을 설정하여 어떤 의미와 목적을 진리라고 제시할 수는 없으며, 언어로 표현되는 개념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의미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인간이 중심이 되지 않는 다의미의 존재가 바로 세계의 모습이며, 이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해명하기 위한 전략으로 언어와 문자에 의한 표현의 한계를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莊子』 내편의 첫 번째 「逍遙遊」 편에는 인간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鯢), 새(鵬), 나무(大椿) 등의 개념이 등장한다. 또한 이들 한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의미만을 지시하는 문자가 아니다. 장자는 이들 존재의 등장을 통해 자신이 인간 내지 인간중심주의를 지우고, 이

16) 앞에서 구분한 Book과 text 설명 참조.

17) 『莊子』, 「齊物論」, “夫道未始有封, 言未始有常”.

세계는 하나로 수렴되는 의미, 추구할 목적이 없는 놀이와 자유의 공간임을 알려주는 무중심의 사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자는 그의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언어유희를 전개하는 전략으로 자신의 사유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체’에 있어서 이전의 어느 중국 사상가도 사용하지 않았던 독특한 담론과 수사법을 선보이고 있다. 『莊子』 텍스트의 첫 페이지를 열면 엄청난 과장과 초현실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즉, 인간의 상식과 지식, 언어적 묘사를 초월할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물고기(鯢)와 새(鵬),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자리이동을 설명하는 장자 사유의 근저에는 허풍과 초월, 은유적 사유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 『莊子』 「逍遙遊」 첫머리에 등장하는 물고기 곤(鯢), 봉(鵬) 새, 그리고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의 자리이동에 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이 곤이다.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바뀌어 새가 되면 그 이름이 봉이 된다. 봉의 등(길이)이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기운을 내서 날면 그 날개가 하늘을 드리운 구름 같다. 이 새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타면 남쪽 바다에 도착한다.¹⁸⁾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곤(鯢)’은 대부분의 한자와 마찬가지로 다의어(多義語, polysemy)이다. 이 문자는 ‘곤어’와 ‘곤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뜻(bisemy)을 가지고 있다. ‘곤어곤(鯢魚곤)¹⁹⁾’으로 읽을 때는 “큰 물고기”를

18) 『莊子』, 「逍遙遊」. “北冥有魚, 其名爲鯢, 鯢之大, 不知其幾千里也. 化而爲鳥, 其名爲鵬. 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莊子』원문의 번역은 김학주, 안동립, 오강남, 이강수 등의 번역서를 참고하면서, 논자가 문맥의 의미를 살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번역하였다. 이하 동일.

19) 『說文解字』, 581쪽. “『國語』, 「魯語」에 고기잡이할 때는 鯢鰠를 금한다는 말이 있다. 위씨의 주석에는 곤(鯢)은 고기새끼이고 이(鰠)는 다 자라지 않은 고기라고 하였다. 위씨는 곤(鯢)은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이고, 이(鰠)는 부화했으나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고기라고 생각하였다.”(“魯語曰, 魚禁鯢鰠. 韋注曰, 鯢 魚子也, 鰠未成魚也. 韋意鯢是卵未孚者, 鰠是已孚而尚未成魚者.”)

뜻하고, ‘곤이곤(鯤鯁곤)’으로 읽을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알”²⁰⁾을 뜻한다. 즉, 한자 ‘곤(鯁)’ 하나의 글자에는 가장 큰 물고기로서의 최대와 가장 작은 물고기 알로서의 최소가 동거하고 있다. 이 문자는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음을 상징하며, 앞에서 설명한 데리다적 의미에서 ‘문자’에 해당한다. 언어학적으로 ‘곤(鯁)’은 최대와 최소를 동시에 지시하는 반대의미(bisemy)의 기호이며, 한자 곤(鯁)과 봉(鵬)은 이 세계가 인간의 중심과 주체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이 거부된 상반된 존재와 의미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임을 지시하고 있다고 해독할 수 있다. 미셸 예(Michelle Yeh)는 이 편에 등장하는 문자 기호 鵬(봉, P'ung)에 대해 “모든 가치와 진리의 비결정성을 위해 요청된 반개념”²¹⁾이라고 해독한다. ‘곤어’로서의 최대와 ‘곤이’로서의 최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의미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逍遙遊」 편에는 곤(鯁)과 봉(鵬)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과장법의 기호가 등장함과 아울러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곤(鯁)에서 봉(鵬)으로 두 존재자의 자리 이동이 제시되고 있다. 즉 하나의 지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물고기 → 봉새로의 존재의 변화도 하나의 의미로 결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학적 정의에서 존재와 대상의 자리를 이동시키는 표현법은 은유²²⁾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逍遙遊」에서 장자는 은유법과 함께 과장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유가 주어에 의한 직접화법으로는 그 진면목을 이해할 수 없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그는 이중적 내지 반대적 의미의 문자를 텍스트에 등록시킴으로 인해 이 세계와 우주가 ‘자아’,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으며, 언제

20)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399쪽.

21) Michelle Yeh, The deconstructive way: A Comparative Study of Derrida and Chuang Tzu,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 10 No. 2) p. 104

22) 은유는 어원적으로 ‘자리이동’을 의미한다. 3장에서 자세히 언급한다.

나 다른 것을 지향하고 다른 것과의 공존을 겨냥하는 공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자는 과장과 초월적 사유의 첫 번째 기호인 곤(鯁), 봉(鵬)에 더하여 ‘오백년을 봄으로 삼는 나무(冥靈)’과 ‘팔천년을 봄으로 여기는 대추나무(大椿)’로 논의를 전개한다. 크고 오래 사는 존재들이 곤(鯁)->봉(鵬)->명영(冥靈)->대춘(大椿)의 자리이동(은유)으로 연결된다. 그가 생각하는 과장적 사유의 차원에서는 이 ‘곤(鯁)’, ‘봉(鵬)’, ‘명영(冥靈)’, ‘대춘(大椿)’ 즉, 물고기와 새, 그리고 나무는 서로 다른 존재자이지만 자기의 고유성을 고집하지 않기에 동시에 서로 동거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시 말해, ‘소요유(逍遙遊)’의 세계에 등장하는 ‘물고기(鯁)’, ‘새(鵬)’, ‘오래 사는 나무(冥靈, 大椿)’ 등은 인간 중심의 폐쇄적 자아성 내지 자기동일성을 거부하는 존재들에 대한 반개념이며, 타자와의 공존과 동거를 지향하는 사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편에서 장자가 설명하는 아지랑이(野馬)와 티끌(塵埃)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해독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지랑이와 티끌은 생물이 숨을 쉬며 서로 내뿜는 입김이다. 하늘의 파란 빛은 그것이 바른 색깔인가? 하늘이 멀어 끝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하늘에서 아래를 볼 때도 또한 이와 같겠지.²³⁾

장자는 “아지랑이와 티끌은 모든 생물이 내뿜는 입김”²⁴⁾이라고 말하였다. 곽상(郭象)의 주석에 의하면 봉새는 “천지(天池)에 이르러 쉰다. 아지랑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운(遊氣)이다. 이 아지랑이와 티끌은 모두 봉새가 날아갈 때 의지하는 것이다”²⁵⁾. 장자와 대표적인 『莊子』 주석가 곽상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지랑이(野馬)’와 ‘티끌(塵埃)’도 천지간에 소요하

23) 『莊子』, 「逍遙遊」. “野馬也, 塵埃也, 生物之以息相吹也. 天之蒼蒼, 其正色邪. 其遠而無所至極邪. 其視下也, 亦若是則已矣”

24) 『莊子』, 「逍遙遊」. “野馬也, 塵埃也, 生物之以息相吹也”.

25) 『莊子』, 「逍遙遊」. 郭註. “至天池而息也. 野馬者, 遊氣也. 野馬塵埃, 皆鵬之所憑以飛者”.

는 대붕(大鵬)의 입김이고 혼적이라 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인 아지랑이와 아주 작은 먼지(티끌),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봉새를 연계하여 생각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라기보다 사유와 표현의 세계와 가깝다. 장자는 세계에서 인간이 중심이라는 사유를 비판하기 위해 동식물을 제시하고, 이 들에 대해 과장법의 수사법으로 설명한다. 과장법은 상상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과장과 상상력은 사유의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²⁶⁾ 한편, 장자의 지적처럼 하늘의 색깔에 대해서 파란 색이 올바른 색깔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유와 관계되며, 인간의 자아성과 자기동일성을 추구하는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현대 과학이 밝혀냈듯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은 하나의 색깔로 수렴되지도 표현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앞에서 「逍遙遊」 편에서 제시된 여러 개념들을 통해 장자가 자아성 내지 동일성에 집착하지 않는 무중심의 사유를 상징하고 하나의 장소에 머물지 않는 자유와 상상력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편의 해독을 따라가면서 장자가 그리는 진정한 존재의 모습은 바로 인간 위주 내지 중심에 기반한 자기 것과 인간 중심의 사유를 고집하지 않는 것에 있으며,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물고기->새, 북->남처럼 모든 것은 끊임없이 자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데리다적 의미에서의 해체주의와 은유를 경유한 이러한 장자의 독법은 동서양의 주요 사상가를 통해 그동안 진지한 담론과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하는 과장법과 다른 존재들 간의 자리이동을 겨냥하는 은유법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김형효는 “과장법은 인간의 이성적 사유가 만드는 절대성이나 전체성을 파괴하고, 진지한 담론과 그 의미 추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성의 제한적 사고방

26) 이런 점에서 중국, 한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 『莊子』는 『文心雕龍』가 함께 문학적 상상력을 함양하는 필독서로 인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식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초과의 사유’를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생긴다.”²⁷⁾고 설명한다. 이어서 그는 “허구를 표현하는 방법인 과장법은 사실의 세계, 경험적 인식의 세계를 벗어나고 싶을 때 사용되는 언어의 유희이며, 과장법은 모든 객관적 규정과 결정가능성의 세계를 초탈하고 싶은 초현실의 요구를 담고 있다”²⁸⁾고 말한다. 다시 말하여 문학적 장르의 구분에 의거하면 과장법은 초월과 초현실의 사유를 대변한다. 이성적 사유, 사실의 세계, 경험적 인식의 세계, 진지한 담론과 의미추구의 세계의 틀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장자는 초현실의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⁹⁾

과장과 은유의 문학적 수사법과 초현실을 지시하는 장자의 사유는 중심을 상정하거나 의미와 목적의 공간에서보다 자유로운 놀이의 세계와 잘 어울린다. 이런 점에서 『莊子』 제1편의 제목인 ‘소요유(逍遙遊)’ 세 글자를 번역하면 ‘천천히 거닐며 노는(逍遙遊)’ 것이다. 편의 제목에 포함된 세 글자가 모두 ‘辵(辵;쉬엄쉬엄갈 착, 달릴 착)’을 부수³⁰⁾로 가지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고 장자의 숨겨진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런 한자풀이에 근거하면, ‘소요유(逍遙遊)’의 함의는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울타리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과 힘으로서의 ‘미끄러져감’ 내지 ‘자리이동’을 뜻하고, 천천히 거닐은 도달할 목적지의 존재를 무색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그리는 상상력, 과장법, 은유, 자유 등의 요소는 놀이(遊)를 겨냥한다고 볼 수 있다.

「逍遙遊」의 해독을 통해 우리는 장자가 노니는 사람, 놀이의 철학자

27) 김형효, 『데리다와 老莊의 독법』, 200쪽. 참조.

한편, ‘초과’의 의미에 대해 김성도, 『그라마톨로지』에서 ‘초월’이라고 번역하였다. 김형효는 ‘초과’의 의미에 대해 그 정당성을 제시하였으며,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는 이 용어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고,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익숙한 용어를 적용하였다.

28) 같은 책, 같은 곳.

29) 같은 책, 201면 참조.

30) 이 부수(辵, 辵)를 지니고 있는 한자는 대개 ‘한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로 불리기를 희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놀이를 지향하는 이러한 사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는 과장과 은유라는 문학적 수사법을 원용한 것이다. 뉴튼 가버(Newton Garver)는 이러한 장자 사유의 특성을 “거리낌 없는 문학적 과장(unrestrained literary extravagance)”이라고 평가한다.³¹⁾ 과장은 현실의 사유에서 보다 놀이의 세계와 더 잘 어울린다.³²⁾ 장자는 당시 전국시대 공맹으로 대표되는 지식과 진리, 의미를 추구하는 유가적 사유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비판하는 전략으로 세계를 “놀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애둘러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놀이는 기본적으로 무목적성과 무의미를 추구한다. 오광명은 이런 놀이의 성격을 “규정된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며,”³³⁾ “놀이는 목적이 없는 의도로 하는 활동”³⁴⁾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하여, 장자는 이 세계가 인간이 의미와 목적의 중심이 아닌 존재들의 놀이의 세계에 지나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과장법과 은유, 언어유희를 사용한 것이다. 「逍遙遊」 편에서 제시된 물고기, 새, 오래 사는 나무 등의 언어유희는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다른 ‘무목적의 세계’, ‘무의미의 세계’, 그리고 ‘무중심의 세계’를 상징하여 이것이 존재들의 진면목이며, 인간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자가 사용한 과장과 은유법적 표현에 기반한 문학적인 전략과 내면에 숨기고 있는 놀이를 겨냥하는 철학적 사유는 우리에게 이 세계를 어떤 정해진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수 없는 놀이의 공간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 지금까지의 해독을 정리하면, 『莊子』 첫 편에 과장법의 수사법

31) Newton Garver, *Speech and Phenomenon*의 서문 pp. ix-xxix.

32) 우리는 어릴 적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과장을 사용하거나 소꿉놀이에서 남자아이가 아버지-어머니의 자리이동을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놀이는 과장과 자리이동의 사유를 반영한다.

33) Kuang-ming Wu, *The Butterfly As Compan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 380.

34) 같은 책, p. 381.

에 의해 등장하는 상상이 불가능한 정도의 큰 물고기(鯢)가 그만한 규모의 새(鵬)로 변한다는 사유는 이 세계에 추구할 목적이 물고기나 새 중 어느 하나로 귀결될 수 없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또한 곤(鯁)이라는 물고기 이름은 최대와 최소를 둘 다 지시함으로써 모든 존재에 이미 타자가 개입되어 있고 반대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봉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은 존재자에게 어떤 고정적 지점도 상정되지 않으며, 변화에 따라 모든 존재는 하나의 의미로 결정되지 않음을 상징한다.

III. 은유와 우언, 중언, 치언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세계가 놀이의 공간임을 설명하기 위해 장자가 사용한 수사법은 시적 표현을 포함한 문학적 은유(metaphor)와 언어유희(play-on-words), 그리고 과장법이다. 과장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고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은유와 다양한 언어유희의 전략, 그리고 『莊子』 텍스트를 주요 문학적 수사법으로 제시된 우언과 중언, 그리고 치언의 해독을 통해서 장자 사유구조의 특징과 철학적 함의를 논의해보자. 제프리 베닝턴(Geoffrey Bennington)에 의하면, 데리다는 그의 해체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은유의 수사법을 사용하였다.

만일 데리다의 문자를 철학의 장르에 끼워 넣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그가 개념에 반대해서 은유를 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³⁵⁾

데리다와 유사한 우회적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는 장자의 은유는 문학적인 기준에 의거하면 우화, 풍유 등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문학적 수사법에서 은유는 곧바로 다른 은유로 끊임없이 대체된다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백색 신화(White

35) Jacques Derrida·Geoffrey Bennington, *Jacques Derrida*, p. 119.

Mythology)」에서 데리다는 은유(metaphor)의 어원인 희랍어 ‘metapherein’에 대한 하이데거의 분석을 소개하고 있다. 이 해석에 의하면, ‘metapherein’은 ‘옮겨 놓기’를 뜻한다.³⁶⁾ 옮겨 놓기는 옮겨 놓을 다른 곳을 필요로 하므로 ‘옮겨 놓기’는 다른 말로 ‘자리이동’이다. ‘자리이동’은 어떤 정해진 고정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의해 끊임없이 보충되고 대체된다. 데리다는 이를 자신의 또 다른 신조어로 보충대리(suplement)라고 정의하였다. 문학적 정의에 의하면, 은유는 다른 것을 빌려서 말하는 비유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은유의 세계에서는 주인은 없고 손님들만 자리를 채운다. 손님은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음을 물론이고, 다음 손님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은유에서 주인, 주체, 주어가 삭제되고 비유되는 것들끼리의 끊임없는 보충대리의 관계만 남는다. 이런 점에서 데리다가 설명하고 있는 ‘은유’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장자의 세 가지 비유법 가운데 우언의 언어 유희에 비견된다. 우언에 대한 본격적인 해명을 하기 전에 언어와 놀이의 함의와 관계에 대한 데리다의 설명을 살펴보자. 언어유희는 문학적,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데리다의 언어유희에 대한 가버의 설명을 따라가 보자.

데리다의 표현 방식에서 일관성이나 명료함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데리다가 말장난을 하려고 기꺼이 애매모호한 말을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각도 있는 적이 없다’고 말할 때처럼 놀라운 말의 전환을 위해 기꺼이 명백한 불합리를 범하는 그런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³⁷⁾

가버가 보기에, 데리다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말은 일관성, 명료성을 겨냥하기보다 애매모호한 말장난처럼 읽힌다는 것이다. 즉, 그는 언어문자의 표현은 야누스의 얼굴처럼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으며 이중적인 의미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일부러 사용한다

36)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p. 226. 참조.

37) Newton Garver, *Speech and Phenomenon*의 서문 pp. xxvi-xxvii.

는 것이다. 차연, 보충대리, 파르마콘³⁸⁾ 등이 이러한 다의적이고 동음이의의 익살 부리기와 말장난(pun)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예들이다. 다시 말하여, 데리다가 언어의 모호함과 모순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차연, 보충대리, 파르마콘 등 하나의 개념과 의미로 수렴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고 새롭게 만든 단어가 어떤 의미화나 개념화로 이해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리다와 마찬가지로 장자는 무의미, 무중심, 놀이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신의 사유를 제시하기 위해 일부러 문학적인 비유법을 사용하는 전략을 실행한다. 그는 「寓言」과 「天下」 편 등에서 우언, 중언, 치언이라는 세 가지 비유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구분한다.

‘우언’은 작자 자신이 직접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 암시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언어방식을 뜻한다. ‘의탁하는 말’

‘중언’은 자신의 주장을 무게 있는 사람(권위자)의 입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무게 있는 사람(권위자)의 말’

‘치언’은 ‘줄거리를 종잡을 수 없는 말’, ‘길게 늘어지게 하는 말’, ‘주제과락을 어렵게 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독자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동시에 당황하게 만드는 언어유희를 가리킨다.

「天下」 편에서 장자(莊周)³⁹⁾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가 침체하고 혼탁하므로 올바른 말을 할 수 없다고 여겨 임기응변의 길게 늘어지게 하는 말(치언)으로써 하였고, 무게 있는 사람(권위자)의 말(중언)으로써 진실로 믿게 하였으며, 의탁하는 말(우언)으로써 의미를 확장하였다.⁴⁰⁾

38) pharmakon, 그리스어, 약과 독을 의미하는 이중의미어.

39) 장자와 莊周가 동일인물인지, 그리고 『莊子』 雜篇이 장자의 저술인지에 대해 학계의 異論이 존재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문헌학적 비평적 관점 보다 문학적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40) 『莊子』, 「天下」, “以天下爲沈濁, 不可與莊語, 以卮言爲曼衍, 以重言爲眞, 以寓言爲廣”.

장자에 의하면, 이 세계의 존재는 직설화법으로는 설명되기 불가능하고, 우언, 중언, 치언 등 간접화법 내지 은유와 비유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마천이 『史記』에서 “장자의 저서는 10여만 글자인데 대부분이 우언이다”.⁴¹⁾고 말한 것처럼 『莊子』에는 선진시대의 어느 사상가의 저술보다 우화와 풍자 등의 은유법과 과장법이 많이 등장한다. 장자 스스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우언은 10에 9, 중언은 10에 7, 치언은 날마다 나오는데, 하늘의 아이들(天倪)로서 조화한다⁴²⁾

장자가 자신의 사유를 문학적인 기법 즉, 우회적 전략으로 제시하는 경우 우언 90%, 중언 70%, 치언 10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우언이란 어떤 수사학적 비유법을 의미하는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동안 1) 자기의 의견으로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기대어 우의적으로 논술하는 표현, 2) 말해야 할 것을 다른 사물에 의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3)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한자로 표현된 중국 고대 저술에서 대표적인 문학적 간접 화법인 우언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제시되었는데, 유향의 우언(偶言), 한비자의 저설(儲說), 유협의 은언(隱言), 불경의 비유(譬喻) 등이 이에 해당한다.⁴³⁾

우언은 사물에 대해 비유를 통해 말하는 간접 화법이다. 어차피 말로 설명하거나 소통하기 어려운 도(道)에 대해서는 우회적 방식의 우언의

41) 『史記』 卷 63. 「莊周列傳」, “故其著書十餘萬言, 大抵率寓言也”.

42) 『莊子』, 「寓言」, “寓言十九, 重言十七, 卮言日出, 和以天倪”.

‘天倪’를 하늘의 아이(들)로 번역한 것은 卮言이 시비를 결정하지 않는 비유법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의미와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 아이들의 놀이와 연계한 ‘말 바꾸기’이다. 이 용어를 ‘하늘의 자연스러움’, ‘저절로 그러한 천분’ 등으로 번역하여 적용해도 의미상 큰 변화는 없으나, 논자의 번역이 본 논문의 이해에 보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43) 朴鐘赫, 「『莊子』 寓言을 통해 본 자연적 사유」, 『중국학논총』 21권, 7쪽.

화법이 더 잘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장자의 글쓰기는 암시적이고 화두적이며 환기적(evocative)이다. 직설 어법보다 소통력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⁴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언이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타자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기 언설의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적인 표현 방법인 것이다.

다음, 중언은 무엇인가? 우언이 다른 것에 의탁하여 자신의 언설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일단 중언은 연장자에 의지하여 자기의 언설을 표현하는 것을 지시하는 듯하다.

중언은 10에 7인데, 자기가 하는 말을 연장자로 하는 것이다.⁴⁵⁾

장자는 자신의 화법 중 70%를 차지하는 중언에 대해 “자기가 하는 말을 연장자가 한 것으로 만드는 것(所以己言也 是爲耆艾)”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시위기에(是爲耆艾)라는 표현이 바로 중언이 함의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다. 먼저 ‘기애(耆艾)’의 한자적 의미는 ‘창백한 빛깔의 늙은이’이다. 성현영의 소에서는 기애(耆艾)를 ‘수고자(壽考者)’로 정의하고 있는데 즉, ‘오래 살아서 생각이 깊은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곽상의 주석에서는 “기애(耆艾)로써 말하면 모두 존중한다. 비록 다른 사물에 빌리지(비유) 않더라도 오히려 10에 7은 믿는다”⁴⁶⁾고 부연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언은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중할만한 연장자의 교훈과 격언을 제시함

44) 오강남, 『장자』, 156-157쪽.

45) 『莊子』, 「寓言」, “重言十七, 所以己言也, 是爲耆艾”. 그런데, ‘重言’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 ‘重’의 자의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 즉 ‘존중하다’와 ‘겹치다(거듭하다)’의 의미가 그것이다. 또한 ‘己言’의 ‘己’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즉, ‘자기’와 ‘그만두다(止)/‘다하다(盡)’의 의미가 그것이다. 이렇듯, 重과 其를 어떤 의미로 풀이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언급하기 보다 장자 사유의 간접 화법의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여기서는 일단, 重(존중), 己(자기)의 뜻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46) 『莊子』, 「寓言」, “以其耆艾, 故共重之, 雖使言不借外 猶十信其七”.

으로써, 그 권위를 이용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언어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언의 전략에 있어서 그 연장자의 권위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즉, 중언의 수사법에서는 연장자의 교훈과 격언에 대한 기대는 해체 내지 삭제되고, 새로운 의미의 창조로 연장자의 권위가 이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중언의 비유법에는 인물 뿐 아니라 ‘물고기(鯢)’, ‘새(鵬)’, ‘나무(冥靈)’, ‘나무(大椿)’, 나비(胡蝶) 등의 동식물, 그리고 아지랑이(野馬)와 티끌(塵埃) 등의 존재가 망라되어 있다.

중언의 비유법의 구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仲尼(공자), 안회(顏回), 자공(子貢), 자로(子路), 혜시(惠施), 노담(老聃), 지리소(支離疏), 견오(肩吾), 연숙(連叔), 선결(齧缺), 왕예(王倪) 등이다. 그런데 이 들은 장자에 의해 기존의 인간 중심의 상식적 교훈을 주장하는 모습이 삭제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로 변모된다.

위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장자의 사유 속에서 인간과 존재에 관한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기호로 등장한다. 특히 안회(안연)와 공자의 대화에서 장자는 인의(仁義)의 도덕의 의미를 해체하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다.

안연이 말했다. 저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뜻이냐? 안연이 대답하였다. 저는 인의(仁義)를 잊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안연이 다른 날에 다시 뵙고 말했다. 저는 예악(禮樂)을 잊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안연이 다른 날에 다시 뵙고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坐忘). 공자가 말했다.... 좌망이 무슨 뜻이냐? 안연이 말했다. 충명을 쫓아내고 몸을 떠나고 앎을 제거하여 크게 통하는 것과 하나가 됨, 이것을 좌망이라고 합니다.⁴⁷⁾

이 대화를 빌려서 장자는 유가적 핵심 가치인 인의(仁義)와 예악(禮樂)의 의미 추구를 잊고(忘)/해체하고 인간과 자연 중 어느 것에도 중심을

47) 『莊子』, 「大宗師」. “顏回曰, 回益矣. 仲尼曰, 何謂也. 曰, 回忘仁義矣. 曰, 可矣....他日復見曰, 回益矣. 曰, 何謂也. 曰, 回忘禮樂矣. 曰, 可矣....他日復見曰, 回益矣. 曰, 何謂也. 曰, 回坐忘矣....何謂坐忘. 顏回曰, 黜聰明, 離形去知, 同於大通, 此謂坐忘.”

두지 않는 공동 동거의 공간의 세계(大通)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조차도 내세우지 않는(坐忘, 지움) 새로운 사유가 창조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구분한 책(Book)의 세계가 교훈과 가치 등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텍스트(text)의 세계에서는 의미가 해체되고 새로운 함의가 부여됨으로써 새로운 기능과 법칙이 가능하게 된다. 중언의 비유법을 통해 장자는 진리라고 추구할 것이라 여겨졌던 가치에 대해 지우기를 시도하고 새로운 사유를 제시한다.

우언과 중언의 비유법은 다른 대상이나 기애(耆艾) 등을 위시한 다른 존재의 소환과 자리바꾸기가 인정되지만, 치언은 ‘시비를 결정할 수 없는 언설’을 뜻한다. 즉, 언어유희, 즉 놀이의 결정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치언은 날마다 나오는데, 하늘의 아이들(天倪)로서 조화한다. 길게 끌고 가면서 세월을 다한다.⁴⁸⁾

문학적 관점과 기준에서 장자가 사용한 수사학적 기법을 구분한다면 우언은 비유, 중언은 은유, 치언은 말장난(pun)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의미와 목적이 포함되지 않는 놀이를 즐긴다. 소꿉장난 놀이를 예로 들면, 아이들이 자기 집에 00가 있다는 식으로 끊임없는 대화를 진행한다. 00는 실제 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시하는 단어 의미와 실재여부가 확증되지 않은 물건들의 표상으로 지속적으로 아이의 사유를 통해 언어로 등장할 뿐이다. 앞에서 이 세계를 놀이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장자에게 진리는 소꿉놀이처럼 ‘내용없는 말’을 길게 늘어 서 시비를 결정할 수 없는 언설들이며, 이미 진리가 내용없는 말이라면 진리를 표현하는 말이 바로 치언인 것이다.

치언에 대해서 위 인용문과 같은 곳에서 장자는 ‘言無言-말하지 않음(말할 수 없음)을 말함’이라고 설명하였다. ‘言無言-말하지 않음을 말함, 표현될 수 없음을 표현함’은 어떻게 해독될 수 있을까? 논자는 다음과

48) 『莊子』, 「寓言」, “卮言日出, 和以天倪, 因以曼衍, 所以窮年”.

같이 설명한다. 즉, 장자에 의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유는 어차피 어떤 언어로도 설명될 수 없으며, 더구나 다른 언설과의 설명과 비교를 통해 서도 결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의 언어로는 존재의 시비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장자는 무중심의 불가결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길게 끌고 가면서(曼衍)’, ‘세월을 다할(窮年)’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수사학적 표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종잡을 수 없고, 주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른바 치언을 사용하는 언어유희는 「齊物論」에 등장하는 선결과 왕예(장자의 대변자, 허구적 인물)의 대화가 좋은 예이다.

선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왕예)은 만물이 같다는 것을 압니까?

왕예가 대답하였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선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선생은 선생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까?

왕예가 대답하였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선결이 왕예에게 물었다.) 그러면 물(物)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왕예가 대답하였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그러나 시험 삼아 말해 보겠네. (그대는) 어떻게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알지 못함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가.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한다(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가.⁴⁹⁾

이 인용문에서 선결의 질문에 대한 왕예의 대답은 知(말함, 言)와 不知, 無知(말하지 않음, 無言)의 경계를 인간의 지식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齊物論」에 나오는 知와 不知, 앎과 모름에 대한 이 언어유희에 관한 두 인물의 대화는 장자가 어떤 개념적 의미추구를 부정하고 있음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 그는 세계의 존재에 대해 구분하는 언어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시비를 결정하는 언설을 부정하면서, 시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표현법으로 치언이라는 개념을 창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장자가 항상 사용하는 치언의 표

49) 『莊子』, 「齊物論」. “齧缺問乎王倪曰 子知物之所同是乎. 曰吾惡乎知之. 子知子之所不知邪. 曰吾惡乎知之. 然則物無知邪. 曰吾惡乎知之. 雖然嘗試言之. 庸詎知吾所謂知之非不知邪. 庸詎知吾所謂不知之非知邪”.

현법에 의하면, 시비를 결정해내는 표현의 주체와 시비를 표현하는 내용은 해체되고, 끊임 없는 은유와 말장난만이 남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장자가 사용하는 비유법인 우언, 중언, 치언이라는 언어적 표현법은 일관되게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자기, 의미, 목적, 가치 등을 해체하는 전략적 수사법인 것이다.

IV. 비유법의 철학적 의미-놀이와 자유의 철학

앞에서 장자가 제시한 치언의 정의에 등장한 ‘하늘의 아이들(天倪)’이 바로 ‘놀이하는 아이’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델로 생각하는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 등에 대해서도 장자는 아이들처럼 이들을 ‘노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다만 이 세 가지 인간형은 아이들과 노는 장소가 달라서, 이들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무궁(無窮)의 경지에서 논다고 설명한다.

끝이 없는 데서 노니는 사람이 또 어디에 기대겠는가? 그러므로 지극한 사람(至人)은 자기가 없으며(無己), 신령스러운 사람(神人)은 공로를 취하지 않고(無功), 성인(聖人)은 명예를 갖지 않는다(無名).⁵⁰⁾

데리다에 의하면, ‘놀이’는 모든 이성적 판단과 선택의 요구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사유에서 가능하다. 놀이는 아이들의 세계이며, 놀이는 어른들의 목적론적 사유를 부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치언과 pun처럼, 아이는 종잡을 수 없고, 주제가 희미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의미 없는 말꼬리를 늘어가면서 오랜 시간 논다. 장자에 의하면 놀이의 세계에서 자기 또는 자기 것의 고집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의 동거와 공존, 나아가 놀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자기 것의 집착은 놀이의 판을 깰 뿐이다. 아이들의 놀이 세계에서는 정해진 틀과 규칙도 존재하지 않고 수시로

50) 『莊子』, 「逍遙遊」. “以遊無窮者, 彼且惡乎待哉. 故曰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

바뀐다. 아이들은 틀과 규칙, 의미와 목적을 해체하면서 놀뿐이다. 아이들은 의미, 목적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를 지향한다. 「逍遙遊」편의 위 인용문에서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 등이 아이들처럼 ‘노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¹⁾ 장자는 놀이와 자유를 지향하는 사유를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고향(無何有之鄉)’이라는 용어와 연계하여 설명한다. 「逍遙遊」에 등장하는 장자와 그의 친구 혜시와의 대화를 따라가 보자.

지금 자네가 큰 나무를 갖고 있는데, 그 쓸모없음을 근심하고 있다. 어찌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고향과 넓은 들판에 나무를 심어서 그 곁에서 무위하면서 방황하고 그 아래에서 누워 소요하지 않는가?⁵²⁾

장자에 의하면, 사물과 대상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거나 쓸모 있음과 없음을 구별하는 사유는 자유와 소요유(逍遙遊)의 놀이를 지향하는 논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자유와 소요유(逍遙遊)의 놀이를 추구하는 사유에서는 인간에게 찾아갈 고향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을 들판을 떠도는 유목민처럼 천천히 거닐면서 노는 길을 가는 존재라고 생각할 뿐인 것이다. 『莊子』 「知北遊」, 「應帝王」 편 등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일찍이 어디에도 있지 않은 궁궐에서 서로 노닐고 함께 의논하는데 끝마치고 다함이 없도다.⁵³⁾

아득히 멀리 날아오르는 새를 타고 세계 바깥으로 날아가서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고향에서 노닐면서 머물고 싶다.⁵⁴⁾

51) 소꿉놀이에서 남아가 엄마 역할, 여아가 아빠 역할을 하면서 노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놀이의 시작단계에서는 남아가 아빠, 여아가 엄마를 하지만 수시로 자신의 자아성을 해체하고 놀이의 관계가 유지된다. 남아가 계속 남자만 하겠다고 하면 이 놀이는 바로 중지된다.

52) 『莊子』, 「逍遙遊」. “今子有大樹, 患其無用. 何不樹之於無何有之鄉, 廣莫之野, 彷徨乎無爲其側, 逍遙乎寢臥其下”.

53) 『莊子』, 「知北遊」. “嘗相與游乎無何有之宮, 同合而論, 無所終窮乎”.

54) 『莊子』, 「應帝王」. “乘夫莽眇之鳥, 以出六極之外, 而遊無何有之鄉, 以處”.

위 인용문들에 등장하는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고향(無何有之鄉)’, ‘어디에도 있지 않은 궁궐(無何有之宮)’, ‘넓은 들판(廣莫之野)’ 등의 표현은 하나의 중심과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고향도 없이 끊임없이 떠도는 사유를 상징하는 기호들이다. 장자에 의하면, 逍遙遊의 세계에는 고향이 나 궁전, 집이 없다. 집⁵⁵⁾처럼 머물 공간이 없다는 이러한 표현들의 철학적 의미는 바로 장자의 사유에서 존재론적인 자아성,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아성, 동일성이 해체된 인간상으로 요청된 개념들을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이라고 이름붙이고 있는데, 장자는 이들의 특성을 설명하여 “지극한 사람(至人)은 자기가 없으며(無己), 신령스러운 사람(神人)은 공로를 취하지 않고(無功), 성인(聖人)은 명예를 갖지 않는다(無名)”고 한 것이다. 지극한 사람과 성인 등 지혜에 이른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그 어느 것도 탐하지 않는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미 자신의 소아적 개체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⁵⁶⁾ 따라서 장자에 의하면, 지인(至人), 신인(神人), 성인(聖人)은 자아성과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추구할 어떤 공로와 명예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자아성, 동일성 등의 존재에 관한 이론의 해체를 겨냥하는 장자 철학의 특성은 우언, 중언, 치언의 간접 화점의 언어적 표현과 밀접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겨냥하는 소요유(逍遙遊) 놀이와 자유를 추구하는 사유는 대개 한자 無(없다. 지우다)를 접두사로 ‘하는 함이 없음(無爲)’, ‘자기가 없음(無己)’, ‘이룩한 일이 없음(無功)’, ‘이름 없음(無名)’, ‘끝이 없음(無窮)’ 등의 용어를 통하여 우회적이고 비유적으로 제시된다. 장자에 의하면 소요유(逍遙遊)의 세계에서 노니는 진정한 인간(真人)은 전혀 자기 것을 만들지 않으며, 없애고 지우기 때문이다. 그가 지향하는 진정한 인간은 자기의

55) 집(舍), 이 한자 역시 다의어이다. 머물다, 집-떠나다, 버림을 의미한다.

56) 吳台錫, 「장자의 꿈 - 초월·해체·역설의 글쓰기」, 『中國語文學誌』, 第45輯, 42쪽.

철학, 고향, 재산, 소유, 존재 등을 잊고 언제나 자유롭게 놀이할 뿐이다. 장자는 이러한 진인(眞人)을 꿈꾸는 놀이와 자유의 철학자였다.

V. 맺음말

이 논문은 장자가 겨냥하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중심을 설정하지도 않음을 주장하는 사유와 소요유 놀이의 철학이 어떤 철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첫째,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특히 은유에 집중하여-의 철학연구방법론을 경유하여 『莊子』 텍스트를 해독하였다. 둘째, 데리다와 장자의 철학에서의 유사성을 다루는 연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그 주요 연구결과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논자는 장자 철학의 특징은 무의미, 무목적, 무중심의 사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였으며, 나아가 데리다 등에 의해 문화와 사유를 새롭게 해독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된 놀이(jeu, play)의 철학을 장자가 추구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장자 사유의 철학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逍遙遊」에 언급된 과장법적 사유와 은유적 우화의 전략들의 특성을 문자학, 해체주의, 은유법 등의 측면과의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데리다가 제시한 은유적 수사법에 대한 문학적, 철학적 해독법을 바탕으로 『莊子』에 등장하는 우언, 중언, 치언 각각의 언어적, 철학적 기능과 의미를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우회적이고 간접화법적인 언어 표현 전략은 자아성과 동일성을 해체하고, 무중심, 무목적, 무의미의 사유를 설명하기 위한 장자의 의도가 반영된 비유법임을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莊子』에 보이는 간접 화법과 비유법의 철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장자에 의하면, 이 세계는 의미와 목적, 가치에 의해 지배되고 관리될 공간이 아니라 천천히 거닐면서 노는 소요유적인 놀이(遊)의 세계와 자유의 공간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세계의 진면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취사선택의 택일적 이분법 내지 이성에 근거한 설명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과장과 다양한 은유라는 우회적 수사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자아성과 동일성 등에 대해 데리다적 의미에서 해체를 겨냥하는 장자 철학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우언, 중언, 치언의 간접 화점의 언어적 표현과 밀접한 연계 아래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齊物論」에서 장자는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술회하였다. 장자는 자아성과 자기동일성이 배제된 꿈속에서 무한자유의 초현실을 경험한 것이다. 이처럼 장자와 나비 사이에는 각각 상호간에 ‘타자의 타자’로서, 데리다적 의미에서 서로 차연적이고 보충대리적인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장자’와 ‘나비’ 각각의 존재에 의한 자기동일성의 추구가 해체될 때, 형식적이고 대립적인 닫힌 이분법의 논리는 없어지고 차이와 자유, 그리고 놀이의 세계가 등록된다. 장자의 이러한 자유와 놀이를 지향하는 사유와 철학은 언어 표현에 있어서도 엄밀하고 분명한 의미추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언, 중언, 치언 등 은유와 비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들에 의해서만 어렵듯이 그 진면목을 유추해 볼 수 있으리라. 데리다의 철학방법론을 경유하여 『莊子』 텍스트를 해체주의 이론-은유법-에 의거하여 해독하면, 우리는 장자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학문연구의 다양성도 진전될 필요가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인간과 세계에 관한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읽어 내려는 대표적 학문 방법론이 바로 해체주의와 텍스트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우주가 직물(text), 거미줄(web), 그물(net)처럼 모든 것은 하나의 존재로 수렴되지 않고, 언제나 이미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 주목한다. 인터넷(Internet)은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로 명명하게 한 큰 역할을 한 산업기제이다. 이 세계에서 지식과 정보의 창조자는 그 독점적 중심자의 지위를 주장할수록 자신의 존재가 해체되고, 오히려 자

기 것을 오픈하고 타자와 연계를 맺을수록 진정한 존재 의의가 드러나게 된다. 즉, 모든 web의 세계에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는 ‘이미 언제나’ 타자가 개입되어 있다. 세계가 텍스트, 거미줄, 그물로 서로 촘촘히 연계될수록 자아성과 자기동일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며, 인터넷과 웹의 세계는 오히려 다른 것(他者)들과의 자유로운 놀이의 공간으로 규정되기를 요구받는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중심, 의미, 목적 등을 거부하고 해체하는 데리다의 철학방법론인 해체이론과 장자의 사유 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21세기 이후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를 보다 잘 해명해내는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장자와 데리다의 철학방법론만이 옳고 또 현대 내지 미래사회를 해독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답은 아닐지라도, 세계와 인간을 이해하는 우리의 시야를 조정하고 지혜를 풍요롭게 하는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 특히 은유적 철학방법론을 통한 우언, 중언, 치언의 비유법으로 제시되는 장자의 사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독이 현대사회와 미래를 대비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老子』, 『莊子』
王夫之, 『莊子通·莊子解』, 里仁書局, 台北, 1984.
김학주, 『장자』, 연암서가, 2010.
안동립, 『장자』, 현암사, 1993.
오강남 풀이, 『장자』, 현암사, 1999.
이강수, 『노자와 장자』, 길, 2009.
김상래, 『노장사유의 해체적 이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1999.
김상래, 「장자의 해체주의적 윤리설」, 『한국철학논집』 32집, 2011.
김성도, 『그라마톨로지』, 민음사, 1996.
김형효, 『노장 사상의 해체적 독법』, 청계, 1999.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2004.
김형효, 『데리다와 老莊의 독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김형효, 「J. Derrida와 莊子」, 『정신문화연구』, 1991.
김형효, 「老子와 莊子の 思惟文法; 老子와 莊子の 思惟世界에 대한 조그만
論理的 分析」, 『정신문화연구』, 1993
朴鐘赫, 「『莊子』 寓言을 통해 본 자연적 사유」, 『중국학논총』 21권, 2005.
五光明 著, 김용섭 역, 『장자철학』, 대구한의대학교출판부, 2009.
吳台錫, 「장자의 꿈 - 초월·해체·역설의 글쓰기」, 『中國語文學誌』, 第45輯,
2013.
정용선, 『장자의 해체적 사유』, 사회평론, 2011.
Jacques Derrida, *Acts of Literature*, ed., by Derek Attridg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Jacques Derrida, *Cinders*(Feu la cendre), trans., Ned Lukacher, (University of
Nebraska, 1991)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trans., by Alan Bas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by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Jacques Derrida, *Positions*, trans., by Alan Bass (Chicago, 1981)

Jacques Derrida, *Speech and Phenomena and Other Essays : On Husserl's Theory of Signs*,
trans by David B. Allison, (Evanston : Northwest University Press, 1973)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by Alan Bas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Jacques Derrida,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s," in
The Structuralist Controversy: 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s of
Man (Richard Macksey and Eugenio Donato, e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2)

Hongchu Fu, Deconstruction and Taoism: Comparisons Reconsidered,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Vol. 29, No. 3, 1992

Kuang-ming Wu, *The Butterfly As Compan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0)

Martin Heidegger, *An Introduction to Metaphysics*, trans., by Ralph Manheim (New
Haven, Conn., 1959)

Michelle Yeh, The Deconstructive Way: A Comparative Study of Derrida and
Chuang Tzu,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Vol. 10 No. 2, June 1983)

Ye Xiushan, "Burial of the World of Meaning: On Derrida, a Philosopher of
Obscurity", *Chinese Social Sciences* 3, 1989)

Youru Wang(王又如), *Linguistics Strategies in Daoist Zhuangzi and Chan Buddhism:
The other way of speaking*, Routledge Curzon, 2003.

Abstract

A philosophical understanding for Chuang Tzu's metaphors / SangRae Kim
(Seo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re are textual similarities between Chuang Tzu(莊子) and Jacques Derrida. We can get the answer and get a new insight into Taoist philosophy by way of Derrida's deconstructive theory. With our discussion of the aspects of Tao from Chuang Tzu and Derrida's 'difference', 'trace' and 'play', we will establish a philosophy affinity between Taoist Chuang Tzu and Derrida's deconstructive thinking.

Chuang Tzu like Derrida deconstructs all kinds of traditional and metaphysical thoughts which can be termed dualistic system of thinking. Derrida and Chuang Tzu each present a challenge against traditional or conventional thought, the common denominator of which can be termed dualistic system of thinking.

So Derrida and Chuang Tzu use many ways to overcome 'the metaphysical dualistic thinking': the extensive use of metaphor and Allegory, the frequent employment of paradox and play-on-word. With the pervasive use of metaphor and Allegory, Chuang Tzu had produced a plural of 'playful' style and full of the de-centering free play of difference and Tao. I call this philosophical tendency as 'non-centered thinking' or 'philosophy of freedom and play' in Chuang Tzu's philosophy.

Chuang Tzu like Derrida suggests that the logic of cohabitation and coexistence recognizes and affirms differences between opposites. In other words, their ways of thinking challenge the value system that suggests a single truth, and propose that all human values necessarily carry half-values. Finally, Chuang Tzu poses a deconstructive critique of the excessive values and excessive meanings in traditional metaphysics. Their suggestions provide us in the transition towards the 21st century with a fresh perspective to look differently at human beings and this world we live in/with the others.

Key words: Chuang Tzu, J. Derrida, deconstructive thinking, Metaphor, Allegory, Freedom, Play.